

시진핑 3기 체제의 정치 및 정책적 함의 분석

이지용 ■ 계명대학교*

〈국문요약〉

2022년 개최된 중국공산당(中國共產黨·CCP)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 20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3기 체제가 시작되었다. 시진핑 3기 체제는 시진핑과 시자권(習家軍) 권력독점 체제의 출범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1인독재와 권력독점은 중국정치에 다양한 함의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치 안정화에 기여한 정치권력 운용의 제도화가 후퇴했다. 제도화 후퇴는 정책결정과정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고 탄력적 적응력을 떨어뜨린다. 중국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이다. 본고는 시진핑 3기 체제의 특징을 정치권력 제도화 후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전개될 정책적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제어: 시진핑, 파위엘리트, 중국정치, 제도화, 20차 당대회

I. 문제제기

2022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와 중국공산당 20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20기 1중전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3기 체제가 출범했다. 20기 1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7인과 정치국원 24인¹⁾을 확정 발표했다.

20차 당대회와 20기 1중전회의 결과, 시진핑 충성과 집단을 일컫는 이른바 ‘시자권(習家軍)’이 중앙권력을 장악했다. 시진핑 1인 절대 지배 체제를 위한 인

*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중국어중국학과 부교수(E-mail: prom@kmu.ac.kr)

1) 19대에서 정치국 위원은 25인이었으나, 20차 당대회에서는 1인 감소시켜 24인으로 구성했다.

적 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동시에 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공청단파(團派)로 분류되던 인사들이 권력 핵심에서 대거 배제되었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 이후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인 장쩌민(江澤民)의 상하이방(上海幫)을 반부패 캠페인을 빌미로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진핑을 견제하는 또 다른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공청단파 세력도 권력핵심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정치는 시진핑(파) 독주체제가 본격화 되었다.

20차 당대회 결과를 놓고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시진핑 3연임과 함께 시진핑 파벌의 독주체제가 중국 엘리트 권력정치와 정치적 안정성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20차 당대회의 의미가 단순히 시진핑의 3연임 체제로 진입했다거나, 1인독재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한 인적기반을 구축했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약 40여 년간에 걸쳐 정착시켜 온 엘리트 정치권력의 제도화의 문제이고, 중국 정치권력의 안정적 운영의 문제이며, 중국정치의 탄력적 현실적응력의 문제임과 동시에 정책적 결과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동시에 중국정치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향방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외 정책과 국제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진핑 3기 체제가 제기하는 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하 중공중앙 정치국) 구성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중국의 엘리트 권력정치와 권력 운용 변화에 맞추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20차 당대회 결과가 중국 엘리트 정치권력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식별할 것이다. 정치권력 운영의 성격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인 중국에서 ‘투입과 산출’의 정치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정치권력 운용의 변화는 시진핑 3기에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 정치경제적 도전에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고는 중국 엘리트 정치권력 변화가 시진핑 3기 체제의 정책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II. 20차 당대회 및 20기 1중전회 주요 결과

20차 당대회에서는 중국공산당 당장(黨章)이 수정되었고(『新華網』 2022/10/26),

시진핑의 업적과 향후 중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 보고가 있었으며, 최소 5년에서 10년 간 중국을 이끌어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등이 선출되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이하 중공중앙) 위원으로는 정(正)위원 205인과 후보(候補)위원 171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앙기율위) 위원으로 133인 등의 명단이 확정되었다(『新华社』 2022/10/22).

시진핑 3기의 중국 정치권력 파워엘리트 집단이 구성된 것이다. 결과는 시진핑 충성파로 구성된 이른바 시자권²⁾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 사항으로는 중공 중앙 위원을 확정하는 20차 당대회 폐막일 회의 중 전임 총서기 후진타오(胡錦濤)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강제 퇴장 당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한 것이다. 후진타오는 새로운 중공중앙 구성 명단이 있는 서류를 가리키면서 시진핑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연출했고, 시진핑이 강제퇴장을 지시하면서 끌려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 된 것이다(McDonell 2022; Palmer 2022). 이는 시진핑 3기 체제와 지도부 구성을 놓고 권력 엘리트 간에 상당한 내부 갈등과 마찰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20차 당대회 폐막일 다음날인 10월 23일 개최된 20기 1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24인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7인,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핵심 및 최고지도부를 구성했다(표 1 참조). 중공 최고지도부 구성결과는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전원이 시진핑 충성파로 채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新华社』 2022/10/23). 또한 시진핑의 뒤를 이을 후계 그룹 중 후진타오 세력의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후춘화(胡春華)가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에서 탈락해 중앙위원으로 남게 되었다. 후춘화가 정치국 위원에서 탈락함에 따라 정치국 위원 수는 기존 25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이른바 시자권으로 구분되지 않거나 기존의 공청단파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권력 최고 핵심부에서 전원 배제되었다.

2) 시자권(習家軍·습가군)은 시진핑 성장과정에서 맺어진 인맥에서부터 당정 간부 역임과정에서 측근세력이 된 인사들로 구성된 시진핑 파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시진핑이 최고 권력을 장악한 이후 시진핑에 충성하면서 신임을 받게된 인사들도 포함된다. 馬準威 2022, 9-10 참조. 시자권의 형성과정과 파벌분포에 대해서는 이지용 2019, 146-155 참조.

〈표 1〉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상무위원 구성표

	서열	성명 (연령 2022년 기준)	계파	직책 (상무위원은 예상 직책)
정치국 상무위원	1	시진핑(習近平) (69)		중국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주석
	2	리창(李強) (63)	시자권(習家軍)	국무원 총리
	3	자오러지(趙樂際) (65)	시자권(習家軍)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4	왕후닝(王滬寧) (67)	시자권(習家軍)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5	차이치(蔡奇) (66)	시자권(習家軍)	중공중앙 서기처 제1서기
	6	딩쉐샹(丁薛祥) (60)	시자권(習家軍)	국무원 상무부총리
	7	리시(李希) (66)	시자권(習家軍)	중앙기율위 서기
정치국 위원 (상무 위원 外 17명)		장여우샤(張又俠) (72)	시자권(習家軍)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상장(上將)
		천민얼(陳敏爾) (62)	시자권(習家軍)	현 충칭시 당서기
		리홍종(李鴻忠) (66)	시자권(習家軍)	현 텐진시 당서기
		황쿤밍(黃坤明) (58)	시자권(習家軍)	중공중앙 선전부장
		허리핑(何立峰)* (67)	시자권(習家軍)	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위원
		마싱루이(馬興瑞)* (63)	시자권(習家軍)	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
		왕이(王毅)* (69)	시자권(習家軍)	외교 담당 국무원 현 국무원 외교부장
		인리(尹力)* (60)	시자권(習家軍)	현 베이징시 당서기
		스타이펑(石泰峰)* (66)	시자권(習家軍)	중공중앙서기처 서기 중국사회과학원 원장
		류궈중(劉國中)* (60)	시자권(習家軍)	현 쓰촨성 당서기
		리간제(李干杰)* (57)	시자권(習家軍)	중공중앙서기처 서기 현 산둥성 당서기
		리수레이(李書磊)* (58)	시자권(習家軍)	중공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선전부 부(副)부장
		허웨이둥(何衛東)* (65)	시자권(習家軍)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상장(上將)
		장궈청(張國淸)* (58)	시자권(習家軍)	현 랴오닝성 당서기
		천원청(陳文淸)* (62)	시자권(習家軍)	중공중앙서기처 서기 현 국무원 국가안전부 부장
	천지닝(陳吉寧)* (58)	시자권(習家軍)	현 베이징 시장	
	위안자권(袁家軍)* (60)	시자권(習家軍)	현 저장성 당서기	

* 신입 정치국원. 괄호()는 2022년 현재 나이.

〈표 2〉 18대 이후 시진핑 권력포진 변화양상

	18대(총정원) 2012년	19대(총정원) 2017년	20대(총정원) 2022년	비고
정치국 상무위	3명(7명)	5명(7명)	7명(7명) 전원 장악	시진핑 포함
정치국	10명(25명)	20명(25명)	24명(24명) 전원 장악	상무위원 포함
군부(중앙군위 및 사령원 등)	6명	전원 장악	전원 장악	시진핑 포함

2012년 권력을 잡은 이후 중공중앙에 자신의 충성파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온 시진핑은 이로써 정치권력의 핵심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표 2 참조).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중공 18차 당대회 당시만하더라도 시진핑 충성파로 분류되는 인사는 정치국 25명 중 반도 안되는 10명 정도에 그쳤다. 시진핑은 집권 후 이른바 반부패 캠페인을 벌이면서 강도 높은 권력투쟁과 정적 제거에 나섰는데, 그 결과 시진핑 집권 2기로 접어드는 중공 19대에서는 시진핑 충성파 인사들이 정치국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는 전원 시진핑 충성파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이른바 파벌 간 권력분점을 의미하는 집단영도체제는 더 이상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III. 시진핑 3기 체제의 특징과 의미: 평가와 해석

시진핑 3기 체제의 출범은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 이후 견지해 온 정치경제 개혁과 제도화를 전면으로 뒤집었다는 의미가 있다. 정치권력과 관련해서 집단영도체제를 형해화시키고 1인 절대지배 체제로 전환되었다. 정치권력을 운용하는 게임의 룰이 깨진 것이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진전시켜왔던 다양한 제도화의 내용을 부정하고 무너뜨린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제도화가 붕괴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권력과 정책적 결과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따라서 시진핑 3기 체제의 출범이 중국의 정치와 정책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시진핑 1인 지배 체제 출범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은 명실공히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더 나아가 시진핑은 장기집권 또는 종신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다. 1인 지배 체제 구축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법적 기반, 권력조직 장악, 인적 기반 구축, 상징적 권위 확보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법적 기반으로 시진핑은 이미 중국공산당 당장(黨章)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헌법에 ‘시진핑 사상’ (习近平 2019; 中央宣传部 2019)을 지도이념으로 삽입함으로써 현직 지도자로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 2017). 20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장에는 시진핑을 당 중앙 핵심으로 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수호한다는 이른바 ‘두개의 수호(兩個維護)’을 당장(黨章)에 삽입했다(『新华网』 2022/10/26). 법적 기반으로 볼 때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마오쩌둥과 동급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권력조직 장악의 측면에서 보면, 당, 군, 정, 중앙기율위, 공안, 외교안보, 인사조직 등 핵심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했다(人民网 2022). 당 권력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 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중공 권력서열 1위 총서기인 시진핑은 당 권력의 핵심인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을 모두 시진핑 충성파로 채웠다. 군 권력으로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군위연합작전지휘센터 총지휘, 중앙군위심화국방 및 군대개혁 영도소조 조장,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주임 등을 모두 시진핑이 직접 맡음과 동시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위원을 모두 자신의 충복으로 임명했다. 정부권력으로는 역시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외교안보, 경제, 정법, 감사, 국내정보 등을 직접 장악하고 있다. 시진핑이 이 정부 실행권력을 행사하는 영역에서 담당한 공식적 직위의 예만 보더라도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주석, 중앙재경위원회 조장, 외사공작위원회 주임,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주임, 중앙전면심화의법치국위원회 주임, 중앙감사위원회 주임,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 조장, 중앙인터넷안전과 정보화위원회 주임 등에 이른다.³⁾ 이들 영역은 원래 당 권력 1인자가 아닌 여타 상무위원이나 정치국원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규범화되어 있었다.

시진핑은 또한 1인 독재 체제를 위한 인적 기반을 완성했다. 중앙 핵심권력

3) 정부 실행권력은 본래 국무원 산하 직책을 의미하지만 중국정치체제는 ‘당·국가’ 체제로 당이 중심이며 정부기구인 국무원은 당의 실행기관이다. 여기에서 나열한 직위에는 중공중앙 직책이지만 정부정책 실행권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직책을 포함시켰다.

을 모두 시자권(習家軍)이 장악함으로써 중국 정치에서 각 파벌 간 권력분점과 집단영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표 2 참조). 더 나아가 시진핑은 3기 체제에서 장기 종신집권을 위한 인적 포석을 마련했다. 20대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중 2027년 개최될 예정인 21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을 이을 만한 후계자가 없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공 지도부는 권력승계를 제도화했다. 차기 지도자로 예정된 후보를 그 이전 당대회를 통해 상무위원에 포진시키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직을 부여함으로써 당권과 군권을 사전에 장악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차기 후보는 지방 당서기와 중앙 당정 부처를 담당할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연령상으로도 차기 당대회 개최 시점에 67세를 넘겨서는 안 되는 것으로 관례화했다. 이번 상무위원 중 이러한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한 인물은 없다.

1인 지배 체제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상징적 권위이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공공연하게 ‘인민영수(人民領袖)’ 칭호를 확산시키고(*BBC NEWS 中文* 2023/11/18), 시진핑 개인에 대한 충성경쟁인 ‘표충(表忠)운동’을 전개하면서 시진핑 사상 학습 운동을 강제해오고 있다. 2016년에 개최된 중공중앙 18기 6중 전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당중앙 핵심”지위를 확보했다(*『中国共产党新闻网』* 2016/10/28). 더 나아가 2021년 단행된 제3차 역사결의에서는 당과 중화민족의 항해 조타수(掌舵领航⁴)이자 신앙의 대상임을 자칭하고 있다(*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 2021). 시진핑은 이로써 과거 마오쩌둥에게 부여된 칭호와 권위를 모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마오쩌둥도 시도하지 않았던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자신을 끌어올리고 있다. 물론 시진핑의 상징적 권위는 광범위한 대중적 동의에 기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한계는 있으나 1인지배 체제의 주요 요인은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정치권력 운용의 제도화 폐기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개혁개방 이후 특히 장쩌민 집권기를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던 권력 운용과 이양의 규범과 규칙은 폐기되었다. 중공 지도부가 마오쩌둥 시기의 폐해를 지양하기 위해 도입한

4)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개인숭배 및 신격화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있다. 인민영수, 항해의 조타수, 당핵심 등은 마오쩌둥의 개인숭배가 극에 달한 시기, 특히 문혁 대동란 시기에 마오를 칭송하는 용어이다. 3차 역사결의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21세기 마르크스, 신앙의 대상이어야 함을 내세우고 있다.

것이 권력 승계와 운용의 제도화였다. 제도화의 대표적 예는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에게 적용되던 ‘7상8하’ 연령제한, ‘집단영도(集體領導)체제’, ‘격대지정(隔代指定),’ ‘임기 제한(국가주석 연임 제한)’ 등의 규범과 규칙이다. 하지만 개혁 개방 이후 제도화된 이러한 규범과 규칙이 이번 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폐기되거나 형해화 되었다.

연령제한 규범인 ‘7상8하’ 원칙에 따를 경우 시진핑은 2022년 69세로 공식에서 은퇴해야 한다. ‘7상 8하’는 매 5년 마다 열리는 중국공산당 당 대회 시점에 만 67세면 당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이나 정치국원이 될 수 있지만, 68세 이상은 은퇴해야 하는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차 당대회 결과 시진핑과 72세인 장여우샤, 69세인 왕이를 정치국원으로 선출함으로써 이 불문율은 파기되었다. 임기제한의 경우 국가주석 연임제한 조항은 2018년 전국인대에서 공식 삭제되었다. 당 총서기의 경우 명문 조항은 없지만 2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규범을 제도화했는데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폐기된 것이다.

집단영도체제는 형식적으로는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강조하면서 ‘집단영도체제 원칙’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집단영도체제는 1인에 의한 권력 전횡을 방지하고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각자 담당할 영역에서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면서 상호 조정과 합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체제이다(胡鞍鋼 2013). 하지만 시진핑이 기존에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분점하던 중앙 권력을 독점함과 동시에, 상무위원을 포함한 핵심 권력직위인 정치국 위원에 시진핑 충성파만을 포진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형해화 되었다.

격대지정 원칙은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은 없는 규범이다. 격대지정은 현직 최고지도자가 차기 지도자가 아닌 차(次)차기 지도자에 대한 지명권을 규범화함으로써 권력승계가 1인 지도자 또는 계파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제약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덩샤오핑은 권력투쟁의 폐단을 끊기 위해 1992년 장쩌민에게 권력을 넘기면서 당시 만 49세였던 후진타오를 다음 지도자로 지명했다. 장쩌민은 자신의 사람을 후계자로 삼고 싶었지만 덩샤오핑이 후진타오를 미리 낙점함으로써 이 료를 준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규범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덩샤오핑은 이를 통해 기존 권력의 독재와 세습 가능성을 차단했던 것이다(Pei 2019). 격대지정 원칙은 시진핑의 권력 승계까지 지켜졌다. 시진핑은 장쩌민 세력이 지명한 후보자로 당시 현직이었던 후진타오는 이 료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격대지정 료의 혜택으로 최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한 시진핑은 20대를 거치면서 이 료를 파기했다. 만약 시진핑과 중공중앙이 격대지정 원칙을 지켰을 경우,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권력 1인자를 지명할 권한은 전임

총서기인 후진타오에게 있다. 후진타오는 공청단파의 유력 후보였던 후춘화를 지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Pei 2019). 이와 같은 권력 이양의 틀에 의거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3연임을 강행하면서 유력 후보인 후춘화를 기형적인 인사로 권력 핵심에서 아예 배제시켰다.

권력 승계와 운용의 제도화가 파기된 것은 중국정치가 개혁개방 이후 일대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중국공산당은 대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권력정치의 틀을 제도화함으로써 당내 결속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또한 정치권력 운용의 제도화는 중국공산당이 급변하는 정치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적응하는 ‘권위주의 탄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그 결과는 중국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다원화로 이어졌고,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것이다. 이는 다시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왔다(이지용 2022). 따라서 정치권력 운용을 위한 게임의 룰이 파기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정치적 안정, 적응력 있는 유연한 정책 표출, 사회경제적 자율성과 활력 등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Chen 2010, 5-51; Nathan 2003, 6-12; Nathan 2009, 37-40; You 2015; 崔智峰 2014; 杨志军 2013, 12-20). 이는 향후 중공 권력정치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특히,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시기를 거치면서 정착된 권력 파벌 간 권력분점과 합의의 구도가 깨졌다. 중국정치는 마오쩌둥 사후 하나의 파벌 또는 권력집단이 독점하는 체제에서 여러 파벌과 권력집단이 권력분점을 통해 상호 공존하면서 합의를 통해 정치권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종전 상하이방, 공청단파 등 시진핑을 견제할 수 있는 파벌의 중앙 권력 기반이 와해되었다. 이는 향후 중국정치가 시진핑과 시진핑 충성파의 독주체제로 직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해 준다.

3. 중공 엘리트 권력정치 성격변화: 관찰과 해석

개혁개방 이후 중공 엘리트 권력정치는 파벌 간 권력분점과 합의가 핵심이었다. 덩샤오핑 시기 이후부터 장쩌민 집권 시기를 거치면서 권력분점과 합의를 대표하는 집단영도체제가 정착되었던 것이다. 시진핑과 같이 중앙권력의 기반이 취약했던 장쩌민 역시, 집권 이후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캠페인을 이용해 정적을 숙청하고 이른바 상하이방을 권력 중앙에 포진시킨 바 있

다. 하지만 장쩌민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파벌들 간의 권력분점이라는 타협을 대가로 자신의 권력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권력의 승계와 운용을 위한 게임의 룰이 제도화되었던 것이다(Pei 2019). 물론 당 엘리트 집단 간의 권력분점은 이른바 중국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기형적 체제를 형성시키고 부정과 부패의 만연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권력분점은 중공의 정책형성과 실행의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유연성과 반응성을 제고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제도화가 진척되어 온 중공 엘리트 집단의 권력분점과 합의의 룰이 시진핑 3기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파기된 것이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지난 10년간 공청단파(團派)와 연대해 장쩌민의 상하이파 제거에 성공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진핑 집권 1, 2기의 10년을 시진핑-공청단 협치의 시기로 평가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시기는 시진핑이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었고, 리커창을 비롯한 공청단파는 실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나마 협치 구도는 유지했다. 하지만 공청단파와의 협치를 통해 최대 정적(政敵)인 장쩌민 파벌을 제거하는데 일단 성공하자, 20차 당대회에서는 이들 공청단파 세력들마저도 권력핵심에서 배제시키고 시진핑과 그 충성파의 독주체제를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력한 차기 총서기 후보였었던 후춘화마저도 권력핵심에서 배제시킨 것은 시진핑 장기 집권에 도전이 될 만한 주요 인사를 사전적으로 제거했다는 의미가 있다.

20차 당대회 폐막일은 중국뿐만 아니라 외신에게도 공개된 행사로 진행되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후진타오가 인사내용이 담긴 서류를 들고 시진핑에게 항의하고 시진핑이 후진타오를 강제로 퇴장시킨 해프닝은 중공 엘리트 집단의 차기 권력구도 구성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와 배신이 있었음을 추정토록 한다(Wu 2022; 小山 2022; 宁海钟 2023; *Wall Street Journal*, 28 October 2022; *New York Times*, 23 October 2022).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시진핑과 후진타오(공청단파) 파벌 간의 야합의 가능성을 말한다. 즉 시진핑이 3연임으로 진입하는데 공청단 파벌이 동의하는 대신 후춘화를 지도부에 편입시키고 차기(次期) 최고 권력을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후진타오 퇴장 시 후춘화가 급작스럽게 당황하고 경색된 모습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Wall Street Journal*, 28 October 2022). 또는 차기 권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청단파가 시진핑 장기집권을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지분을 나누어 받는 것으로 야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의 계산을 시진핑이 막후에서 배신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일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권력투쟁 일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진핑과 시진핑 파벌 독주

체제가 중국 정치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가장 큰 영향은 당내 결속과 단결이 와해된다는 것이다. 시진핑 독주체제의 강행은 비(非)시진핑 그룹의 불만과 반발이 내재적으로 축적되어 갈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내재적 반발이 본격적인 권력투쟁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주된 이유는 중공 당 정군 간부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반부패캠페인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이미 중국공산당 내 그 어떤 간부도 부정부패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정적과 반대파를 숙청하고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反)부패 캠페인을 동원해오고 있다(이지용 2019, 137-165). 따라서 3기 체제에서도 비(非)시진핑 그룹에 대한 지속적 숙청이 예고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반부패캠페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비(非)시진핑 그룹은 또한 시진핑에 대항할 정당성과 명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당내 결속력은 더욱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발적 동의가 결여된 강요된 충성은 형식주의, 냉소주의, 집단 이기주의 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외형적으로는 강고해 보이지만 내재적으로는 부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과도하고도 형식적인 충성경쟁과 탕핑(躺平·복지부동)을 일상화시키면서 중국공산당의 현실 반응력을 떨어뜨리고, 위기 시에는 축적된 내재적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진핑은 당·정·군·기업 등에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는 비(非)시진핑 그룹을 단속하고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집권 10년 간 자신에게로 집중시킨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시진핑 1인 절대지배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1인 절대지배 체제는 상황의 오판과 독단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정책형성과 결정에 경직성을 강화시키게 된다.

IV. 시진핑 집권 3기 정책 및 중국의 정치경제 방향 전망

시진핑은 집권 3기 들어 그동안 추진해왔던 자신의 정책을 본격화할 것이다. 시진핑 노선과 정책 방향을 이번에 수정된 당장(黨章)에 신규 삽입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사회, 경제, 대외관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정치권력투쟁 지속과 중국정치 불안정성

시진핑의 결여된 권위와 강화된 권력 간에 확대되는 ‘이격(離隔)’은 정치권력 운영과 정책의사결정과정 등에서 경직화, 급진화, 파편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정치 및 정책적 선언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반대파에 대한 지속적 숙청과 엘리트 집단의 동요, 당내 단결과 결속의 내재적 와해, 독단적 결정과 경직되고 파행적인 정책 남발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시진핑에게 부여된 권위는 사실상 강요된 자화자찬으로 점철되어 있다. 또한 그에게 부여된 각종 칭호(인민영수, 당핵심, 조타수 등)는 당내 엘리트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하고 있다기 보다는 충성파들에 의해 자칭으로 부여된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이 상징적 외형과 실질적 권위 간의 매우 큰 ‘이격’의 결과는 반대파에 대한 불안과 의심을 증폭시키고, 이는 강도 높은 지속적 숙청으로 이어지면서 충성을 강요하게 되어있다. 그 결과, 당내 엘리트 집단의 동요와 불안이 증가하고 당내 단결과 결속은 내재적으로 와해되며, 충성경쟁(표충운동·表忠運動)이 가열되면서 중앙정책결정에 있어 독단성, 경직성, 역행성은 심화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과정을 평가할 때, 최고지도자의 불안정한 당내 권력 기반은 두 가지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 중 하나는 반대파 제거를 위한 숙청의 일상화이고 다른 하나는 최고지도자의 권력과 권위 공고화를 위한 급진적 정책 촉발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오쩌둥 시기 대참사로 막을 내린 ‘대약진운동’과 이어진 ‘문화대혁명’이다.

시진핑은 또한 자신의 권력을 차기 후계자로 이양하지 못하는 경로로 들어섰다. 시진핑 3기에 잠정적 후계 구도가 형성되더라도 이는 과거 마오쩌둥이 린바오(林彪), 문화혁명 4인방, 화궈핑(華國鋒) 등을 이용해 1인 절대권력을 유지하던 것과 비슷한 양태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오쩌둥은 1인 절대 지배 체제를 구축한 다음, 후계자 지명을 이용해 자신의 충성집단 간 끊임없는 경쟁과 견제, 그리고 이들 간의 권력투쟁과 자신에 대한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종신집권을 이어나갔다.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후계, 경쟁, 충성의 권력운영 게임’ 구도와 기본적으로 같은 논리구조의 권력게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시진핑 충성과 엘리트 그룹 내에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끊임없는 권력투쟁이 전개되면서 충성과 내부의 실질적인 단결과 결속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는 중공중앙 내에서의 지속적 정치권력 투쟁이 중국정치를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2. 정치노선과 정치경제 및 대외 정책

20차 중공 당대회에서 수정된 당장(黨章)에 삽입된 정치노선과 정책 관련 주요 키워드는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집중통일 영도(習近平同志 爲核心的黨中央權威和集中統一領導),’ 당이 모든 일체의 것을 영도한다는 ‘당일체영도(黨是領度一切的),’ ‘두개의 수호(兩個維護),’ ‘전과정민주(全過程民主),’ ‘공동부유(共同富裕),’ ‘쌍순환(雙循環)’ 경제발전, ‘투쟁정신(鬥爭精神)’과 투쟁력 발휘, ‘대만독립 반대와 억제(堅決反對和遏制臺獨)’ 등이다(『新华网』 2022/10/26).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당장(黨章)에 삽입되었다는 것은 정책으로 실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의 핵심 키워드들은 모두 개혁개방과 시장화에 역행해 공산당 중심의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정치노선의 기본방향은 시진핑 1인 절대 지배체제를 축으로 중국공산당이 정치·사회적 전체주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일체의 모든 사안을 영도해야하며 중국은 전사회적으로 시진핑과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확히 1961년 ‘당일체영도’ 원칙을 수립했던(毛澤東 1968, 40) 마오쩌둥 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당정 권력기구를 당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 이후 40여년 간 강조해온 ‘당정분리(黨政分開)’ 방침을 폐기하고 역으로 당이 영도하는 ‘당정합일(黨政合一)’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과정민주(全過程民主)의 의미는 이른바 인민민주독재를 전사회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 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공과 시진핑에 대한 지지를 기층사회단위까지 확대해 강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중공 정권은 이것이 마오쩌둥이 강조한 ‘인민민주독재정치(人民民主專政)’ 원칙을 계승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尹漢寧 2021). 그런데 전과정민주주는 인민민주독재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중공의 전체주의 전제정치를 시진핑 1인 절대지배 체제로 강화했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즉, 공산 전체주의 체제를 1인 절대자 중심의 획일적 전제정치 체제로 더욱 강화한 것이다(Cabestan 2022, 377-378; Doyon 2018).

경제정책 리더십과 관련 통상 국내정책과 경제를 책임지는 중공 권력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직에 현 상하이 당서기 리창이 임명되었다. 리창은 시진핑 경제노선을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런데 리창은 경제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전무. 기술학교와 농기계전문학교 출신으로 주로 지방정부

민정(사회조직관리, 치안안정관리)업무 담당해 중앙당과 정부 정책이나 전략 수립 경험 전무하다. 또한 시진핑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지시를 가장 충실히 수행한 시진핑 충성파로, 상하이 당 서기에 있으면서 중국경제 심장부인 상하이시를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폐쇄하는 극단적 정책 단행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리창이 이끌 중국 중앙정부(국무원)의 경제정책은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을 충실히 강행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쌍순환(雙循環)경제 정책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는 당·국가 중심의 중앙집중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및 운영을 의미한다. 공동부유(共同富裕)는 국유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시장경제에 대한 당·국가 개입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쌍순환(雙循環)경제는 국내의 생산과 소비경제를 중심으로 하고 대외교역이 보조한다는 의미로서 그 핵심은 지금까지의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자급자족경제(*autarchy*)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1산업분야 1초대형’ 국유기업 중심으로 단일화·독점화 정책을 전개하고, 민간경제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생산 유통 부문에서는 ‘동일대시장’ 체제로의 재편이 논의되고 있다. 주요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시장에 대한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전형적인 중상주의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대외관계와 관련해서는 대만 흡수통일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세계패권국 지위 달성을 위해 시진핑을 중심으로 전민족적 단결과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세적 외교를 유지하면서, 전랑(戰狼·늑대전사)외교와 샤프파워(*sharp power*) 투사 수준을 높이고, 자유세계와의 대결적 자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이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진핑의 외교 사상을 충실히 실행해 온 왕이(王毅) 국무원 외교부장이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외교담당 국무위원 겸직)을 맡으면서 기존의 대외관계 기본 노선과 행태를 지속할 것이다. 더욱이 중공 내부 문제로, 외교부장인 친강(秦剛)이 해임되고 이미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된 왕이가 외교부장을 재담당하는 전대미문의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BBC NEWS 中文*, 25 July 2023).

시진핑 3기 체제의 전체주의 강화정책과 공격적 대외정책은 이미 표출되기 시작했다.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하는 2023년 3월 개최된 양회에서는 현재 제도적으로나마 중국정부 기관인 중국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통합해 ‘중앙내무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안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鄭聿文 2023; 安德烈 2023). 기존 국가안전위원회에서 더 나아가 중국 국내 통제감시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2023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대외관계법이다(『中国政府网』 2023/06/29). 이 법은 중국이 현재 국제법과 국제규범 등으로 구성된 국제질서와 상충되는 대외정책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리고 신설된 대외관계법의 핵심은 중국의 국내법으로 중국의 주권 영역 외에도 자국의 법과 의지를 강제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23년 4월 26일 중국 전국인대 14차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령으로 ‘반간첩법’을 대폭 수정해 발표했다(中华人民共和国 2023). ‘반간첩법’ 수정안은 기존 반간첩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내용으로 중공과 중국 정부가 의도하기만 하면 중국 국내외를 막론하고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는 의심과 정황만 있으면 증거가 없어도 간첩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과 외국기업들은 중공과 중국 정부가 의도만하면 어떠한 형식으로도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대외관계법과 반간첩법 수정안은 중공이 1978년 12월 개혁개방으로 선회를 결정한 이후 개방 정책을 전면으로 뒤집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3. 정책환경 변화

시진핑 3기에 중국 국내 정치·경제 및 대외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중국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중국모델(당·국가 주도의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난맥상에 봉착해 있다. 즉, 현재 중국경제 악화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정책적 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성격의 난맥상이다. 특히 구조적 문제의 임계치에 도달한 중국경제는 향후 중국경제의 난맥상을 야기할 구조적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김기수 2018; Bloomberg News 2023; McMahon 2018; Orlik 2020).

향후 중국 경제는 보수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도 경제 불황의 장기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현실이다. 향후 중국경제는 당·국가 주도의 중앙집중관리형 경제 운영, 당·국가 국가자본주의 심화,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급속히 퇴보가 전망된다. 민간 부문과 시장 경제 퇴보, 경제 하강과 함께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중국이 선전하는 신규 예비중산층의 3/4이 민간영역에 종사하고 있다. 당·국가 중심 주

도의 경제정책과 시진핑 경제노선의 경직되고 경색된 관리운영체제로 경제위기 발생 시 중공과 정부의 대처능력은 크게 제약될 수 있다. 만약 경제위기 사태 발발시 중국사회의 전면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현재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자유서방세계는 중국의 패권확장 정책을 차단하기 위한 견제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및 경제에서의 대중 결집이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견제 정책에는 군사안보 및 경제적 대응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안보 영역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중심으로 한 ‘쿼드(Quad),’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안보경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AUKUS’ 등은 향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구도를 확대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함께 중국에 대한 최첨단 기술 유출을 제한하고, 글로벌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향후 2000년대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글로벌공급망과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경제적 지위는 급속도로 소멸될 예정이다.

즉, 중국은 현재 개혁개방 이후 경험하지 못한 국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역사는 부상하는 신흥강대국이 정치·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오히려 가장 위험한 대외적 불안정을 야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중국이 그 전형적 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난관과 예상되고 있는 위기 발생은 중국의 대외정책에 매우 위험한 신호가 될 것이다(Beckley & Brands 2022).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면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민족의 세계 패권 장악을 공세적으로 전개하는 중국에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진핑 1인 절대지배 체제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면, 시진핑 1인 절대지배 체제의 위기관리 능력 한계가 노출되고, 시진핑은 도발적 대외요인을 발생시켜 중화민족주의를 동원해 내적인 위기를 넘기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시진핑 3기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1인 절대 지배 체제, 경제적으로는 당·국가(黨國·party-state system)⁵⁾ 중심의 중앙 집중식 경제 운영, 사회적으로는 디지털 전체주의 통제관리 시스템 심화, 대외적으로는 중화민족주의(中華民族主義)에 기반한 공격적 행태가 분출될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매우 험난한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적 난관에

5) 당(黨)이 국가(國家)보다 우위에 서며,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체제. 공산당 1당 지배 체제로 정의한다.

직면하면서 더욱 경직되고 공세적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1인지배체제 공고화와 동시에 당내결속력 약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임계치를 넘은 구조적 경제문제 표출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국내의 독재 체제에 대한 반발과 급진적 중화민족주의 동시 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자유 진영 국가들의 중국 패권 정책 차단을 위한 연대 강화와 중국의 대외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시진핑정권의 급진적이고 도발적 대외정책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 정부와 사회는 중국공산당 체제의 성격과 실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여 년간 중국과의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를 심화시키면서 중국이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라는 사실에 눈감아 왔다. 반면, 중국공산당은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자유세계를 붕괴시키고 전세계를 중공 주도로 공산화한다는 목표를 단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Pillsbury 2016).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중공은 중국 국내적으로 전체주의 통제사회를 강화 구축해 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몽’과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슬로건 하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붕괴시키고 세계패권을 장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런데 시진핑 1인 절대 지배 체제가 공고화된 3연임 체제에서의 중공은 지금까지 추진한 시진핑 노선과 정책을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국 사회와 정부는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체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질서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와 병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하겠다.

중국 정치체제의 실체와 변화양상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더욱 경색되고 급진화 되고 있는 중국의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 변화에 대처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차이나 리스크’의 심각성을 감안 대응전략과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축적되어 온 이른바 ‘중국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시진핑의 경제노선인 당·국가 중심의 중앙집중식 경제 관리 및 통제 체제가 확대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 3연임 체제에서 가속화될 ‘공동부유’와 ‘쌍순환’ 정책은 국유 및 민간 경제에 대한 당·국가의 중앙집중식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대외경제는 당·국가 장악한 초대형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에 기술, 자본, 수출을 통한 외화 공급원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실행 정책 중 하나인 ‘국유기업개혁 3년 행동’은 1산업 1초대형 국유기업(一業一企)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대내적으로는 민간 기업을 억제, 축소, 흡수합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해당산업에 대한 세계적 독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은 지역수준에서 생산공급과 소비를 당·국가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외기업의 중국 소비시장 접근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요약하면, 중국경제에서 민간영역이 축소, 당·국가의 경제장악력 확대, 외국 기업과 대외교역에 대한 통제권 강화가 핵심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진출 한국기업과 중국과의 교역에 주력하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차이나 디리스킹(China Derisking) 정책’, 최첨단 산업에서의 중국배제 정책 등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수준의 공급망 구조변화임을 간파하고, 이러한 조류에 한국의 기업이 신속히 올라탈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기업의 전략마련과 유기적 공동대응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안보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가속화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군전력 발전과 전략개념 수립에 서둘러야 한다. 국내적으로 공산당 전체주의화를 가속화하고 대외적으로 중공 중심의 지역 및 세계질서 재편을 강행하는 중공이 제1순위로 박차를 가하는 것이 중공 인민해방군 국방전력 강화이다. 한국은 중공 인민해방군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동아시아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위협임을 재인식하고, 중국의 정치적·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軍) 전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안보전략개념을 치밀하게 재수립해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와 지속적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은 명실공히 혈맹이자 전략적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중국을 북한이 위협과 별개로 간주하는 ‘전략적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현실화되고 있는 국제 신냉전 구도는 한미동맹 심화와 일본, 유럽 자유우방국과의 안보연대 및 협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동맹을 통한 세력균형과, 이를 통한 평화의 유지는 국제정치의 기초문법이다. 한국은 현재 우리와 ‘자유’라고 하는 삶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해 자유연대를 통한 세력균형과 평화질서 유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에 진입해 있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기수. 2018. 『중국경제의 추락』. 서울: 세종연구원.
- 이지용. 2019.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과 중국의 정치권력 엘리트 권력지형도 변화: 평가와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24(2), 137-165.
- _____. 2022. “중국의 ‘권위주의 탄력성’ 요인변화 분석: 제도적 탄력성에서 제도화된 전제정치로.” 『新亞細亞』 4(12), 5-40.

영문 자료

- Beckley, Michael & Hal Brands. 2022. *Danger Zone: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Bloomberg News. 2023. “China’s \$23 Trillion Local Debt Mess Is About to Get Worse.” *Bloomberg*, May 22,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23-05-21/china-s-23-trillion-local-debt-crisis-threatens-xi-s-economy#xj4y7vzkg> (accessed 8 June 2023).
- Cabestan, Jean-Pierre. 2022. “Organisation and (Lack of) Democracy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 Critical Reading of the Successive Iterations of the Party Constitution.”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51(3), 364-385.
- Chen, Titus C. 2010. “China’s Reaction to the Color Revolutions: Adaptive Authoritarianism in Full Swing.” *Asian Perspective* 34(2), 5-51.
- Doyon, Jérôme. 2018. “Clientelism by design: personnel politics under Xi Jinping.”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47(3), 87-110.
- McDonell, Stephen. 2022. “Hu Jintao: The mysterious exit of China’s former leader from party congress.” *BBC*, October 22,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63358627> (accessed 23 October 2022).
- McMahon, Dinny. 2018. *China’s Great Wall Of Debt: Shadow Banks, Ghost Cities, Massive Loans, and the End of the Chinese Miracle Hardcover*. New York: Harper Business.
- Nathan, Andrew J. 2003. “Authoritarian Resilience.” *Journal of Democracy* 14(1), 6-12.

- _____. 2009. "Authoritarian Impermanence." *Journal of Democracy* 20(3), 37-40.
- Orlik, Thomas. 2020. *China: The Bubble that Never Pop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lmer, James. 2022. "What the Hell Just Happened to Hu Jintao?" *Foreign Policy*, October 22, <https://foreignpolicy.com/2022/10/22/china-xi-jinping-hu-jintao-ccp-congress/> (accessed 23 October 2022).
- Pei, Minxin. 2019. "Rewriting the Rules of the Chinese Party-State: Xi's Progress in Reinvigorating the CCP." *China Leadership Monitor* (June 1), <https://www.prclleader.org/peiclm60> (accessed 30 November 2021).
- Pillsbury, Michael. 2016. *The Hundred-Year Marathon*. New York: St. Martin's Griffin.
- Wu, Guoguang. 2022. "New Faces of Leaders, New Factional Dynamics: CCP Leadership Politics Following the 20th Party Congress." *China Leadership Monitor* (December 1), <https://www.prclleader.org/wu-december-2022> (accessed 24 February 2023).
- You, Wei. 2015. "The End of Reform in China Authoritarian Adaptation Hits a Wall," *Foreign Affairs*, (May/June),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end-reform-china> (accessed 14 February 2020).

중국어 자료

- 邓聿文. "聿文视界：党政机构改革，习近平为什么五年要折腾一次." *VOICE OF AMERICA CHINA*, 9 March 2023, <https://www.voachinese.com/a/deng-yuwen-on-ccp-and-chinese-goverment-reforms-20230309/6997313.html> (accessed 28 April 2023).
- 刘智峰. 2014. 『渐进的改革:中国政治体制改革的经验与反思』.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 毛澤東. 1968. "在扩大的中央工作会议上的讲话(一九六二年一月三十日)." 王晁星. 『毛泽东思想万岁(1961-1968卷)』. 武漢: 武漢師院革委會宣傳部, 24-46.
- 馬準威. 2022. "中共「二十大」後對美及涉臺政策趨勢分析." 『全球政治評論』. 第八十期, 9-15.

- 小山. 2022. “胡锦涛被离场 前中共老干部公开要求“学弟”习近平说明.” *rfi*, November 1, <https://www.rfi.fr/cn/%E4%B8%AD%E5%9B%BD/20221101-%E8%83%A1%E9%94%A6%E6%B6%9B%E8%A2%AB%E7%A6%BB%E5%9C%BA-%E5%89%8D%E4%B8%AD%E5%85%B1%E8%80%81%E5%B9%B2%E9%83%A8%E5%85%AC%E5%BC%80%E8%A6%81%E6%B1%82-%E5%AD%A6%E5%BC%9F-%E4%B9%A0%E8%BF%91%E5%B9%B3%E8%AF%B4%E6%98%8E> (accessed 2 March 2023).
- 习近平. 2019.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是党和国家必须长期坚持的指导思想.” 『人民日报』 (7월 22일), <http://theory.people.com.cn/n1/2019/0722/c40531-31246901.html> (accessed 4 January 2020).
- 安德烈. 2023. “中共20届二中全会开幕国安系统或作重大变革.” *rfi*, February 27, <https://www.rfi.fr/cn/%E4%B8%AD%E5%9B%BD/20230226-%E4%B8%AD%E5%85%B120%E5%B1%8A%E4%BA%8C%E4%B8%AD%E5%85%A8%E4%BC%9A%E5%BC%80%E5%B9%95%E5%9B%BD%E5%AE%89%E7%B3%BB%E7%BB%9F%E6%88%96%E4%BD%9C%E9%87%8D%E5%A4%A7%E5%8F%98%E9%9D%A9> (accessed 2 March 2023).
- 杨志军. 2013. “中央与地方、国家与社会：推进国家治理现代化的双重维度.” 『甘肃行政学院学报』 第6期, 12-20.
- 尹漠宁. 2021. “全过程人民民主是更高更切实的民主.” 『人民日报』 (12월 8일), http://www.qstheory.cn/qshyjx/2021-12/08/c_1128142038.htm (accessed 28 October 2022).
- 宁海钟. 2023. “习近平跟胡锦涛等前高官拜年 官媒表述异常.” 『大纪元』 (1월 20일), <https://www.epochtimes.com/gb/23/1/20/n13911407.htm> (accessed 24 January 2023).
- 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 2021. “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 『人民日报』 (11월 17일), <http://cpc.people.com.cn/n1/2021/1117/c64387-32284363.html> (accessed 8 December 2021).
- 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 2017. “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关于《中国共产党章程（修正案）的决议（2017年10月24日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通过）.” 『人民日报』 (10월 25일). <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5/c414305-29606870.html> (accessed 30 November 2023).

2022).

中央宣传部. 2019.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学习纲要』. 北京: 人民出版社.

中华人民共和国. 2023.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2023 修订).”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第四号)] 2023/4/26, http://www.xab.cas.cn/tpxw/202306/P02023_0621520627285836.pdf (accessed 11 May 2023).

人民网. 2022. “中央组织结构图.” <http://cpc.people.com.cn/GB/64162/448511/index.html> (accessed 30 November 2022).

胡鞍鋼. 2013. 『中国集體領導體制』.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六次全体会议公报. (2016年10月27日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六次全体会议通过).” 『中国共产党新闻网』 2016/10/28, <http://cpc.people.com.cn/n1/2016/1028/c64094-28814467.html> (accessed 30 December 2022).

“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委员名单.” 『新华社』 2022/10/22, <http://cpc.people.com.cn/20th/n1/2022/1022/c448334-32549631.html> (accessed 30 October 2022).

“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一次全体会议公报.” 『新华社』 2022/10/23, <http://cpc.people.com.cn/20th/n1/2022/1023/c448334-32549949.html> (accessed 30 October 2022).

“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部分修改 2022年10月22日通过.” 『新华网』 2022/10/26, http://www.news.cn/politics/2022-10/26/c_1129081750.htm (accessed 13 November 2022).

“中国官媒给习近平总结的最新“称号”是什么?” *BBC NEWS 中文*, 18 November 2017,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42036121> (accessed 14 November 2022).

“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 2023年6月28日第十四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次会议通过, 『中国政府网』 2023/06/29,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06/content_6888929.htm (accessed 8 July 2023).

“秦刚: 中国人大常委会决定免去其外交部长一职, 任命王毅为外长.” *BBC NEWS 中文*, 25 July 2023,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66276701> (accessed 26 July 2023).

“逐帧分解胡锦涛在二十大闭幕会上的中途离场。” *Wall Street Journal*, 28 October 2022, <https://www.wsj.com/story/6ycq5bin5yig6kej6ioh6zsm5rab5zyo5lqm5y2b5asn6zet5bm5lya5lik55qe5lit6y5cu56a75zy6-2c30227d> (accessed 4 January 2023).

“胡锦涛被带离二十大会场引发关注和猜测。” *New York Times*, 23 October 2022, <https://cn.nytimes.com/china/20221023/hu-jintao-china-congress/> (accessed 24 October 2022).

Abstract

An Analysis on Poli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Xi Jinping's 3rd Term

Ji-Yong Lee ■ Keimyung University

Xi Jinping's 3rd term began since the CCP's 20th Congress and the 1st plenum of the 20th CPC Central Committee. Xi Jinping's 3rd term is characterized as Xi's absolute dictatorship and *Xijiajun's* monopoly of political power. The dictatorship system has multiple implications on China's politics. The most significant implication is substantial degeneration of China's institutionalization in term of political power. It is to bring about increasing inflexibility in political and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degenerating political resilience of the Chinese politics. Also, it means rising instabilities in China's politics, economy, and foreign policy. The paper examines the Xi's 3rd term system focusing on the degeneration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Lastly, it anticipates policy directions of the Xi's 3rd term, and then draws its political implications.

Key Words: Xi Jinping, China's politics,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the CCP's 20th Congress, power elites